

# 하나·우리카드 이어 수협까지... 롯데카드 인수전 '관심'

수협중앙회, 금융지주사 전환 예고  
증권·자산운용·여전사 인수 의사에  
업계, 롯데카드 매각전 합류 예상

롯데카드 매각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두 달 전 한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한채 입찰을 중단했지만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사 전환을 예고하며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오는 203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인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롯데카드 전경.

/뉴시스

여전사 인수 과정에서 롯데카드 매각전에 뛰어들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그간 인수에 관심을 보이던 회사들까지 포함해 러브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선 수협중앙회의 여전사 인수 의지로 롯데카드 매각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입찰에 뛰어들 하나 금융지주를 포함해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여전히 롯데카드 인수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 인수전은 카드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인수합병을 통해 반등을 노릴 수 있지만 MBK파트너스가 요구하고 있는 가격은 인수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매각 과정에서 부진을 겪었다.

우선 인수 유력 후보군으로 전망한 우리금융지주와 KT가 인수전에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인수후보자들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제안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다. 다만 유력 후보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매각 흥행에는 실패했다.

MBK파트너스가 요구하고 있는 3조원에 대한 평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금융업계에선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평가다. 지난 2019년 인수 당시 1조3810억원에 인수를 단행하고 3년 후 2배가 넘는 가격에 매각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해석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지정한 3조원이 타당성 있는 숫자라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인수 이후 롯데카드의 당

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인수를 단행한 2019년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었다. 그러나 인수 이후 로카시리즈의 흥행과 함께 2020년 1307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241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아울러 기존 롯데계열사로 유통채널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롯데카드는 결제 데이터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모두 롯데카드 인수를 통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여전사 인수 소식만으로 판도는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700억 채안펀드로 여전채 진정 '역부족'

금융업계, 총 여전채의 41% 불과  
업계 "채안펀드 보수적 운영 아쉬워  
신뢰회복 위해 공격적 매입 필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채권 매입을 통해 열어 붙은 채권시장 진정에 나섰지만 여전 업계에서는 매입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매입량이 총 700억원 규모에 그치기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안펀드가 여전채 매입을 단행했다. 신한캐피탈 3년물 300억원치와 KB캐피탈 3년물 400억원치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여전채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채권시장 관계자들 또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여전채 시장에 반전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여전채 매입은 KB캐피탈의 채권 중 16%, 신한캐피탈 채권 중 25% 수준에 그쳤다. KB캐피탈은 1년물 300억원, 3년물 1300억원, 5년물 300억원 등

을 포함해 총 2500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한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은 2년 1개월물 500억원, 3년물 700억원으로 총 1200억원 규모다.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 진정에 나선다는 금융당국 소식에 기대를 모은 여전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의 채권만 취급하고 있는 행보가 채안펀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지주 중소 캐피탈사의 채권 구매를 통해 여전채 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인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전채 시장은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여전채(3년물, AA+) 금리는 6%를 돌파한 이후 소폭 진정되며 5.9%선에서 당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3일 또다시 6% 선을 돌파한 여전채 금리는 이를 연속 6%선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AA+ 등급 미만의 여전사의 경우 부담은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7%대 금리를 부담하며 자금을 조달했다.

일각에서는 여전채 시장 진정에 자금투입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전채 금리는 서민 금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부, 무직자 대출, 현금서비스 등 '서민들의 금전 창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초 2.5%대 자동차 캐피탈은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캐피탈사 또한 저금리 자동차할부 상품을 내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3분기 평균 3% 중·후반대의 자동차 캐피탈 금리는 이달 6~7% 선을 돌파했다.

무직자 대출, 카드론 등의 대출 서비스 또한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 여전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환급 리스크가 큰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점차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여전채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조속한 진정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달러 강세, 수출 늘어... 美, 무역수지 개선

한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배경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등에 소비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리밸런싱이 지속된 영향이다.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배경'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 4월 이후 미국의 수출(통관 기준, 이하 동일)은 늘고 수입은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통화강세는 해외(국내) 시장에서 자국 수출품(외국 수입품)의 상대가격을 상승(하락)시켜 수출을 줄

이게(수입을 늘리는) 된다. 미 달러화 10% 절상은 연간 미국 실질수출을 2.6% 감소시키는 반면 실질수입은 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세 차례 달러화 강세 시기 중 1980~1985년 및 1995~2002년의 두 기간 중에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2014~2017년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 4월 이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 증가, 재화소비 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입 감소 등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수출은 올해 중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20% 내외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수입은 4월 이후 증가

세가 둔화됐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이다. 특히 올 3월 이후에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에너지 수출 확대는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 물량 증가 등에도 기인했다.

재화수요가 줄어들면서 올 4월 이후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및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 등으로 재화 소비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재고축적도 둔화된 것. 재화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공급측면에서 수입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연준의 긴축기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 "내년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개발 청정에너지 사업 등 적극적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MSCI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명동사옥에서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과 만나 저탄소 경제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등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하나금융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MSCI는 투자지수인 MSCI 지수 및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제공하며,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ESG 등급 리포트를 작성해 공개하는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이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은 기후 리스크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2년도는 기후변화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2023년도에는 기후변화로 금융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MSCI의 ESG 시장 전망을 반영해 하나금융이 ESG 금융시장을 선

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2023년에는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 등 ESG 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와 관련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ESG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ESG 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한국채권시장에서도 지속가능채권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하나금융그룹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해 그룹 ESG 비전인 '빅 스텝 투모로우(Big Step for Tomorrow)'를 수립하고, 올 4월에 개최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